



실시했다. 빙그레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5월 15일 영상 광고를 온에어 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빙그레는 2018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표 아이스크림 제품 투게더 판매 수익금 등에서 마련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빙그레의 사명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빙그레’ 정신이 담겨있는 만큼 전사적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심이 크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동제약, ‘나를 위해 비타500 해요’ 디지털 캠페인 온에어



광동제약이 비타500과 살아있는 비타민C 펭수의 콜라베이션 송을 공개했다. 넌지시 야근을 권하는 부장님에게 당당한 목소리로 “퇴근을 요청합니다”, “힘드네 어떻게 힘을 내나요?”라고 외치던 펭수가 이번엔 특유의 사랑스러움과 귀여움으로 무장한 ‘비타500×펭수송’과 함께 찾아왔다.

광동제약이 공개한 이번 영상은 일상생활에 지쳐있는 사람들에

게 응원의 노래를 전달하는 펭수가 나온다. 끝이 없는 회의에 녹초가 돼가는 직장인, 늦은 밤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조별과제에 치이는 대학생에게 비타500×펭수송을 들려준다. ‘주지마요 그부담, 쓰지마요 인간힘’ 반복되는 느낌의 가사는 비타500×펭수송이 컷가에 맴돌게 한다. 보고 있으면 중독되는 펭수의 매력처럼 노래를 듣다 보면 계속해서 듣고 싶어지는 즐거움을 전달한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나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지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기자신을 사랑하는 펭수처럼, 나를 행길 수 있는 노래로 메시지를 전한다”며 “펭수의 열정적인 모습을 제작진들만 보기 아까워, 펭수 단독 콘서트 버전으로 추가 제작해 광동제약 공식 채널을 통해 팬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LG전자 테헤란로에 초대형 사이니지 설치 ‘제품 마케팅 강화’



LG전자가 서울 테헤란로 일대에 초대형 LED 사이니지를 설치했다. ‘한국판 타임스퀘어’로 불리는 테헤란로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며 제품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옥외광고물은 기존 건물 벽면 위에 LED 사이니지를 부착하는 방식과 달리, 지면에 높이 26m의 새로운 구조물을 만든 후 앞면과 뒷면에 각각 가로 12m, 높이 21.8m 크기의 초대형 LED 사이니지를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LG전자가 옥외광고물 디자인 설계, 기초공사, 구조물 제작 등 시공까지 전 과정을 전담했다.

이번 광고물은 삼성역 사거리를 이동하는 인구가 매일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LG전자는 다양한 제품 및 브랜드 마케팅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임정수 LG전자 한국B2B마케팅담당은 “LG 사이니지의 혁신 기술을 앞세워 고객 가치 기반의 차별화된 솔루션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KAA